

지은이 이미경

남편과 함께 딸 둘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부입니다.
나의 얼굴, 남편의 성격을 닮은 첫째와 남편의 얼굴, 나의 성격을 닮은 둘째가
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두 아이의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다.
나의 도전이 글쓰기를 좋아하는 첫째에게 좋은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.

행복했던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.

Thank you my mom!



엄마가 되어 보니

초판 1쇄 | 2022년 9월 21일

지은이 | 이미경

제작지원 | 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

발행인 | 이현숙

펴낸이 | 최문성

펴낸곳 | 도서출판 달구북

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4안길 28, 1층 (범물동)

Tel) 070.4175.7470 Fax) 0504.199.0257

Email) dalgubook21@naver.com

Homepage) www.dalgubook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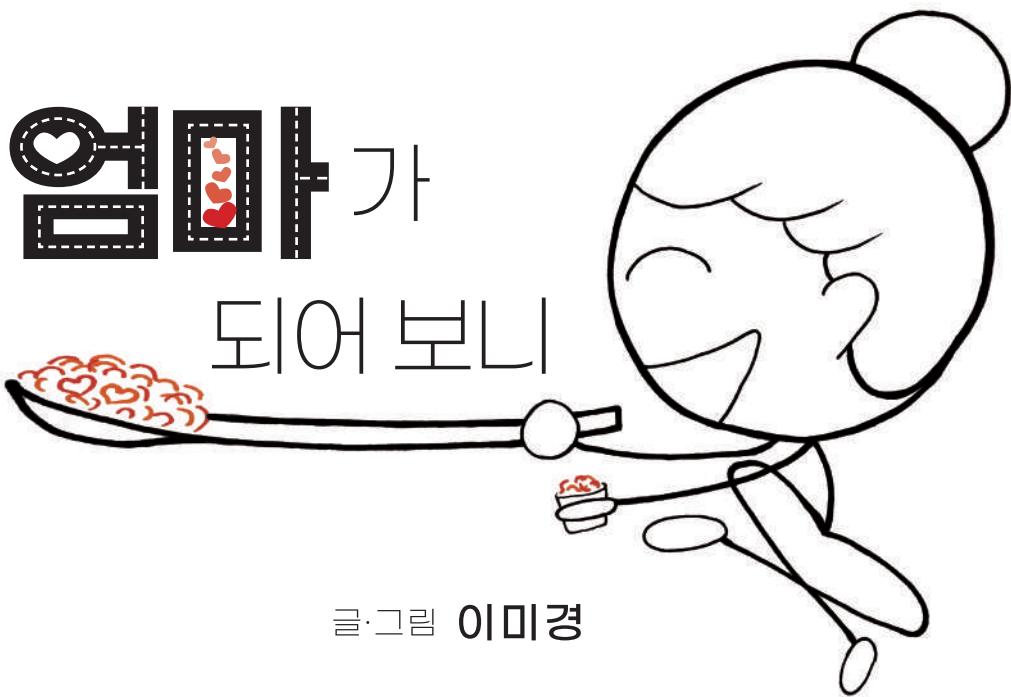
출판등록 | 제2022-000001호

© 2022, 이미경

ISBN 979-11-90458-14-6 (77810) (비매품)

본 도서는 '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[1관 1단] 사업'의 후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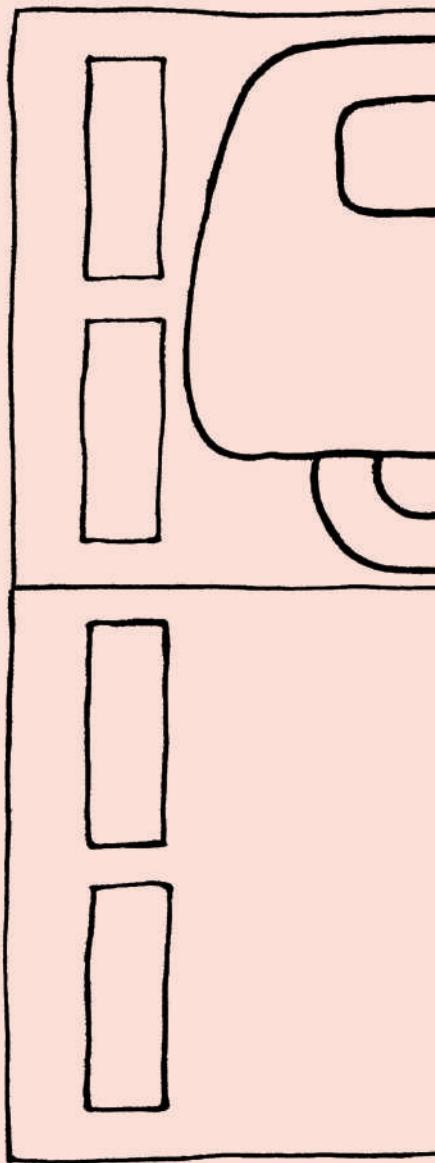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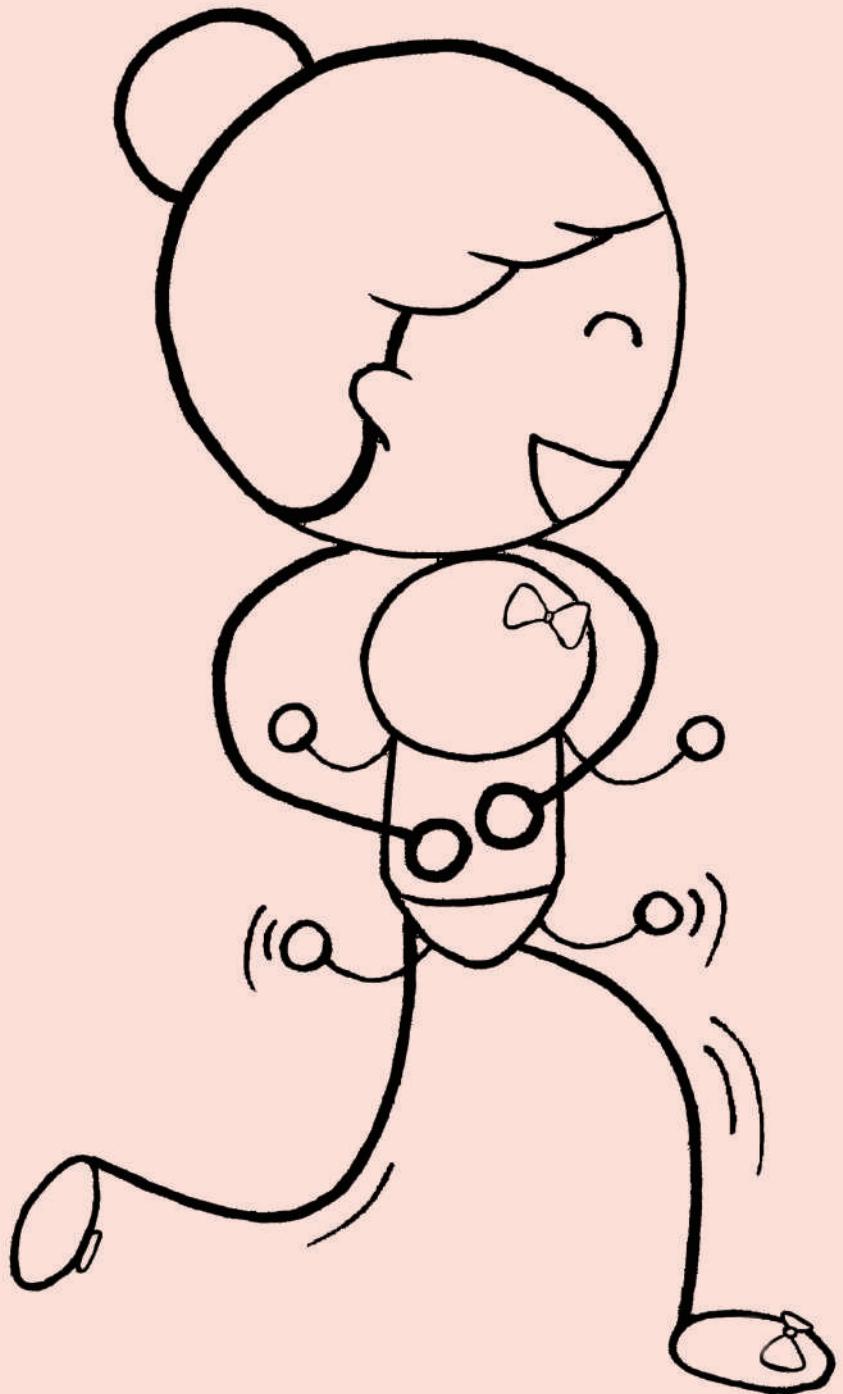
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.
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도서출판 달구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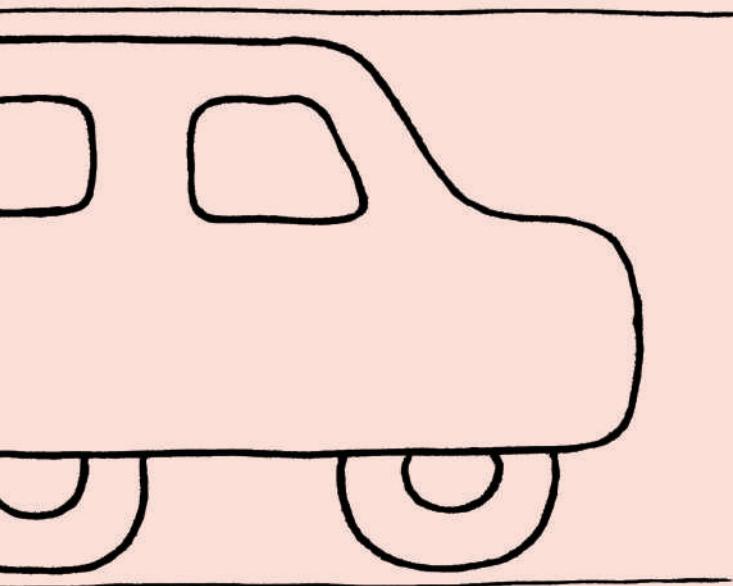


엄마가
되어 보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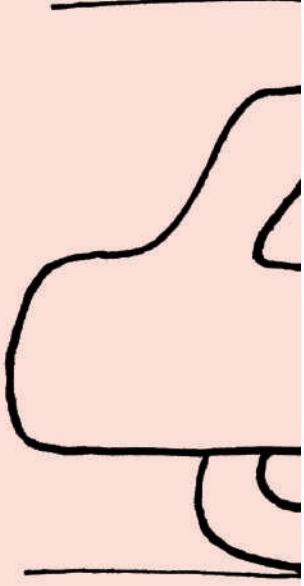
글·그림 이미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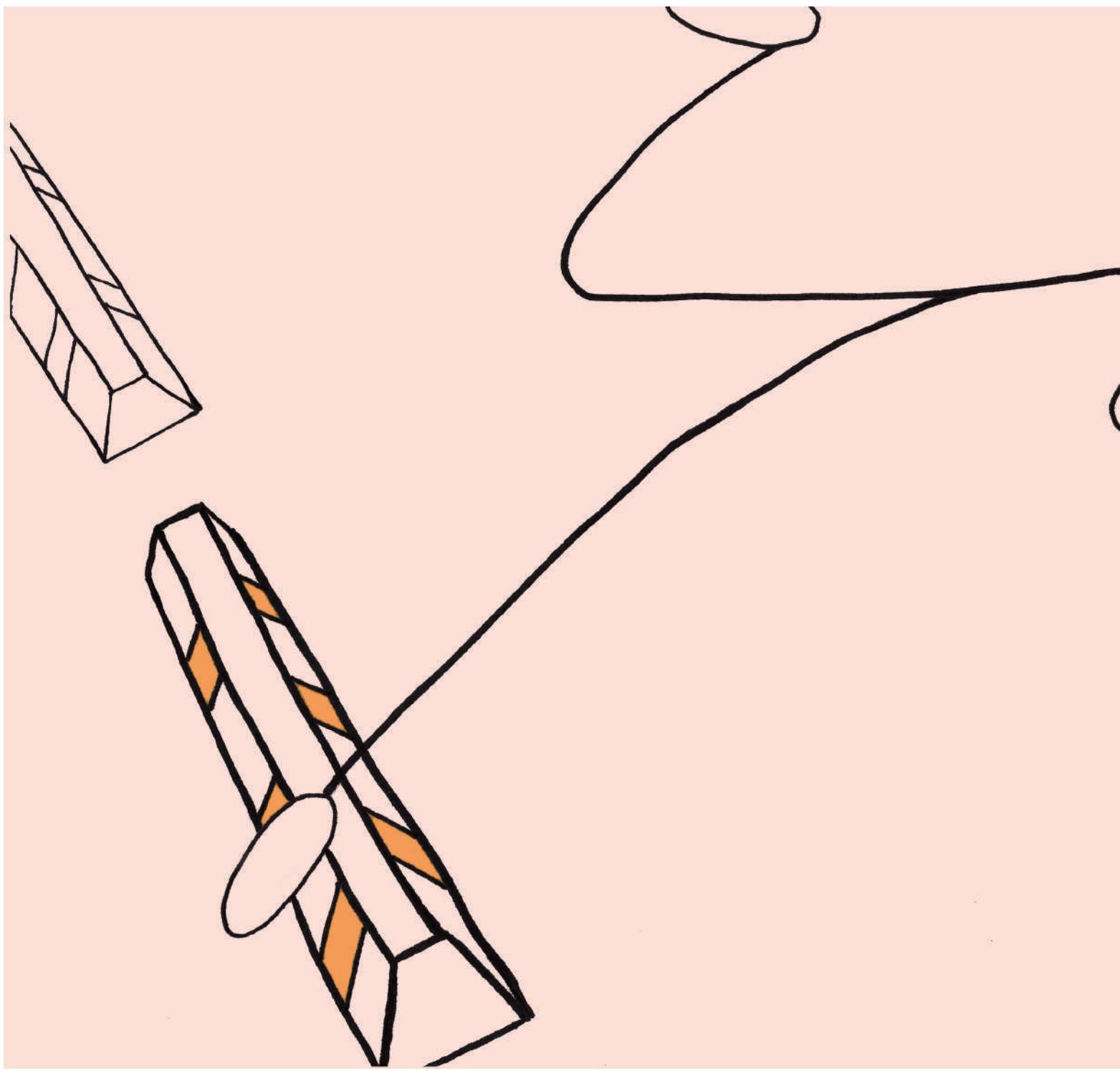
D
밀구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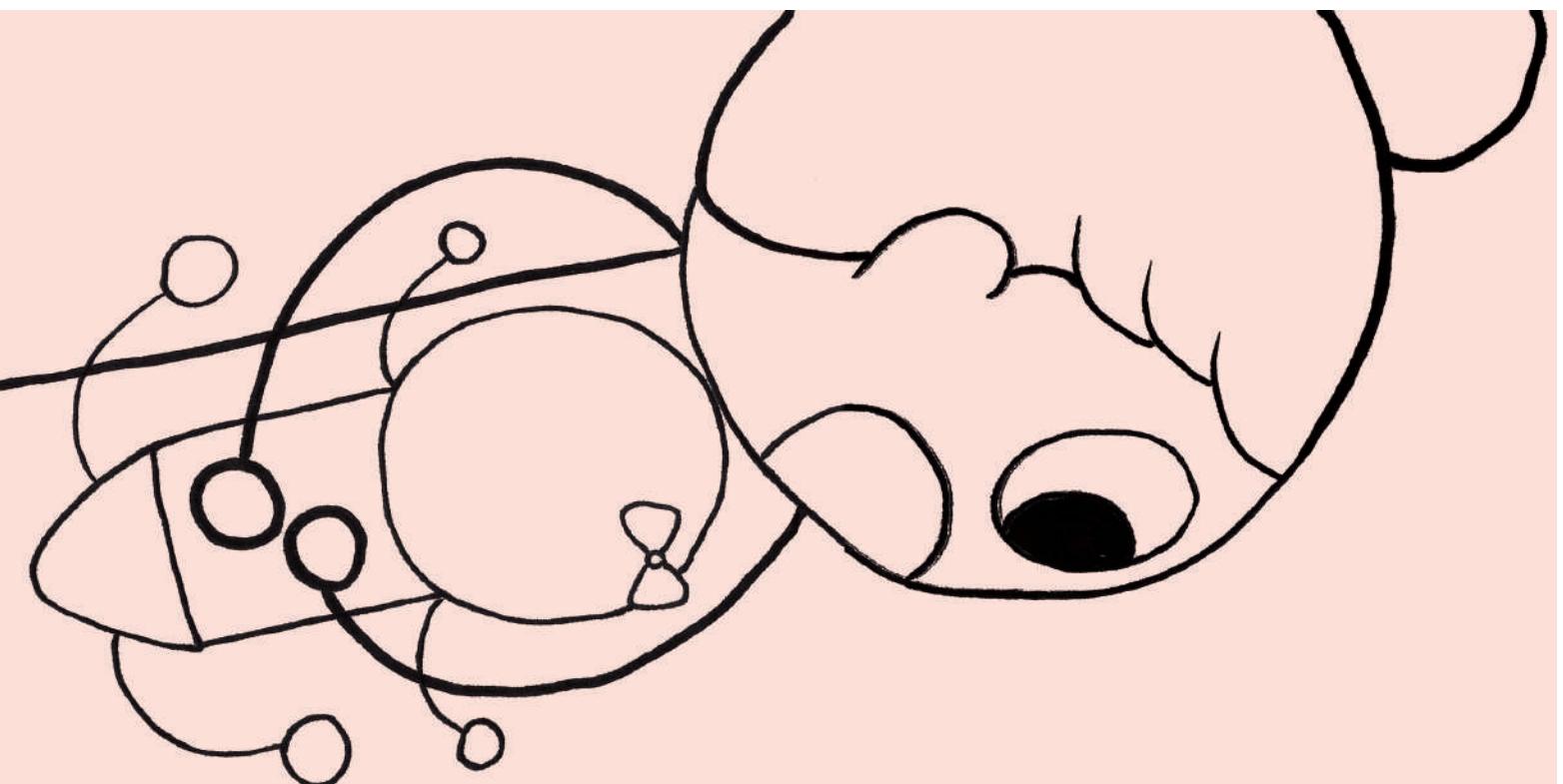




출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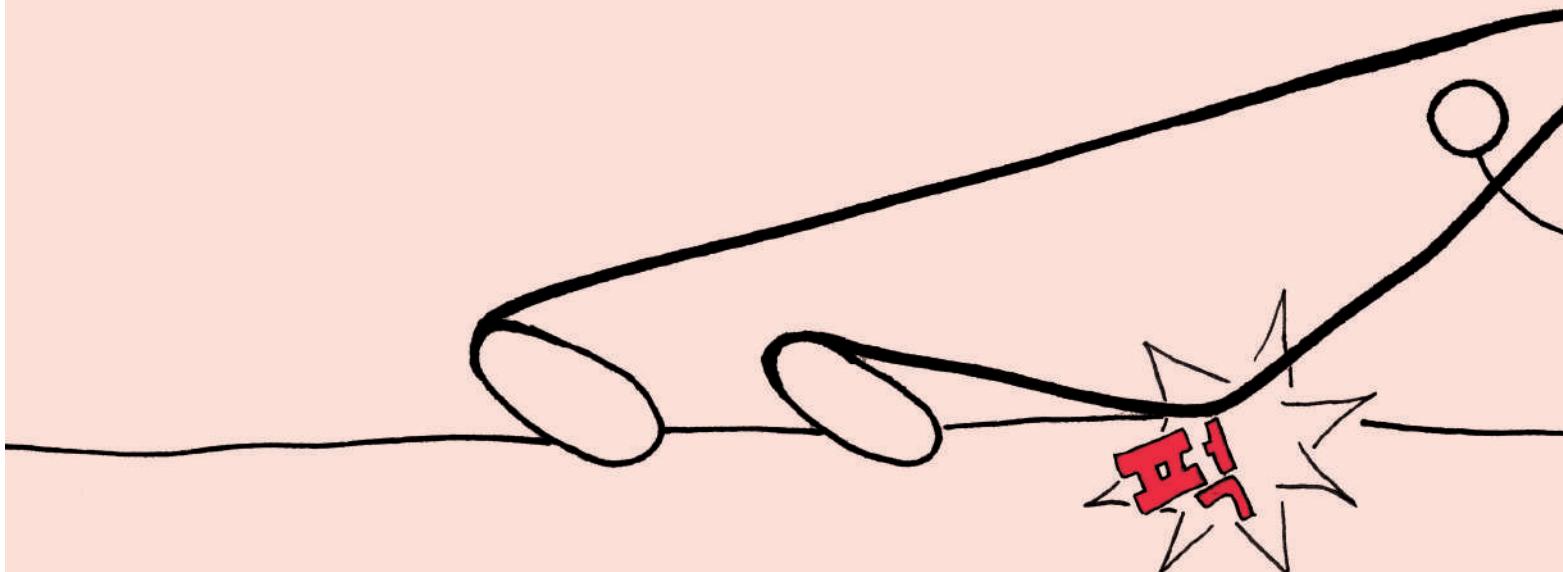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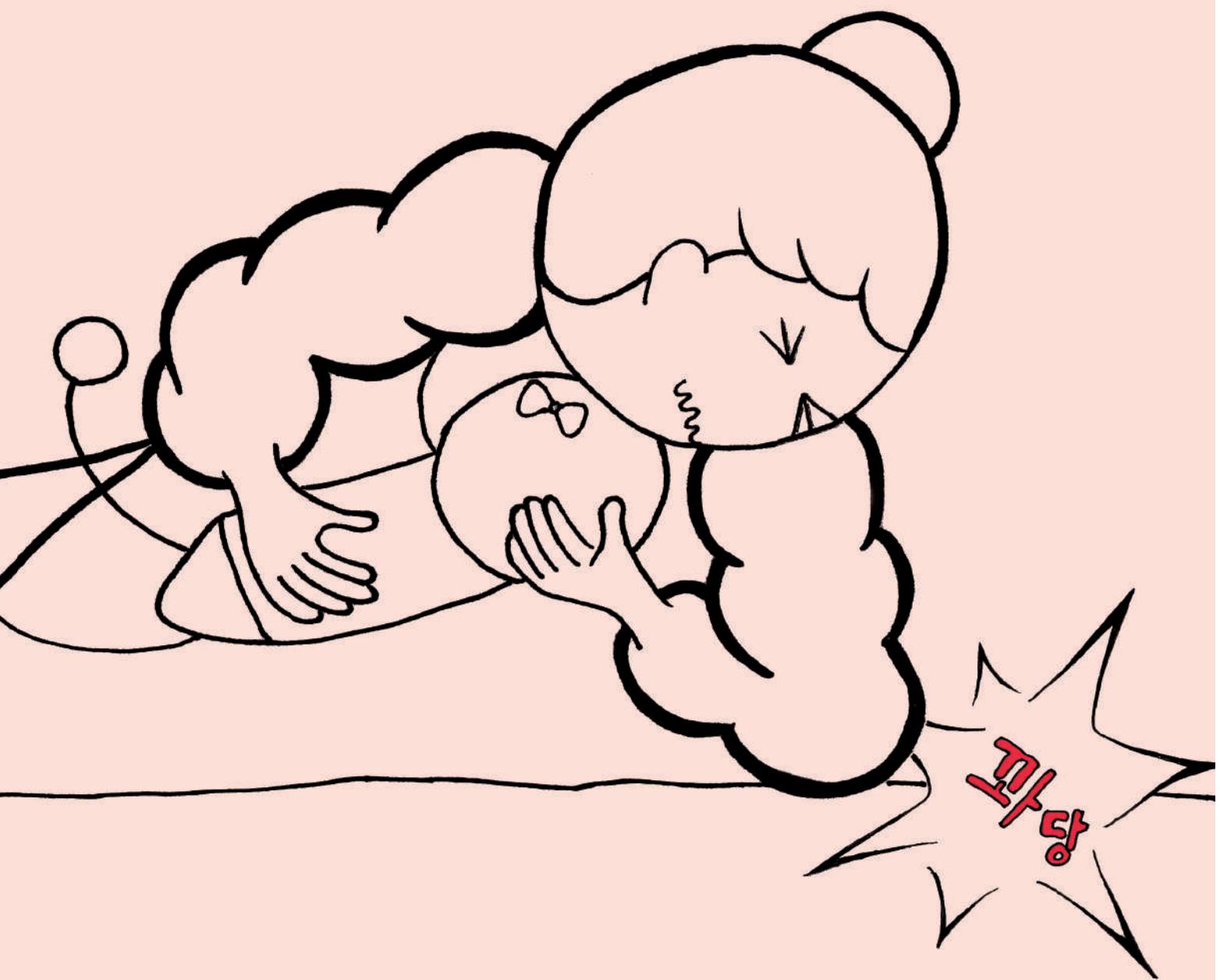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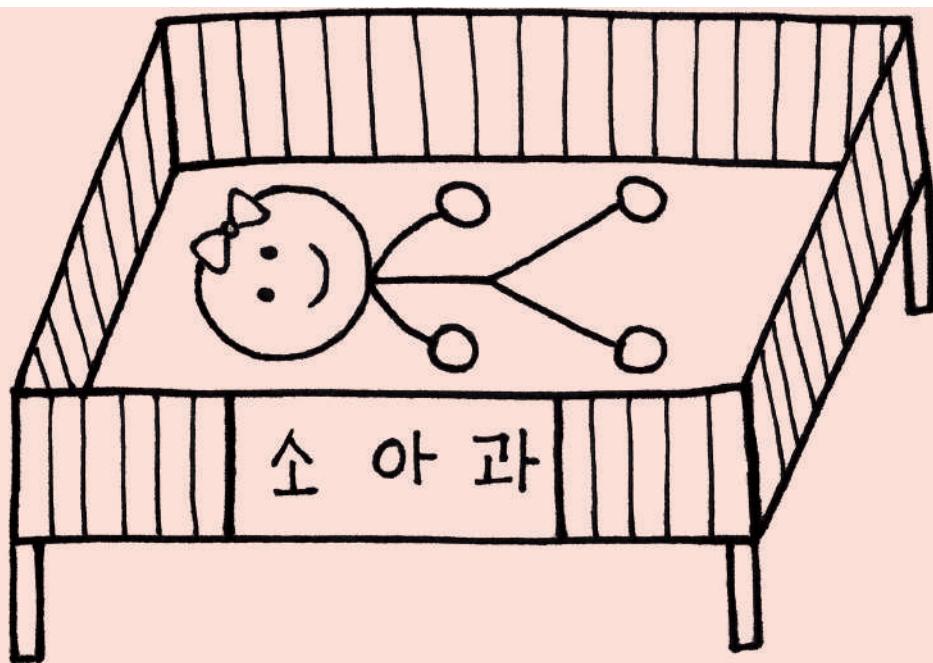


엄마가 되어 보니 알겠더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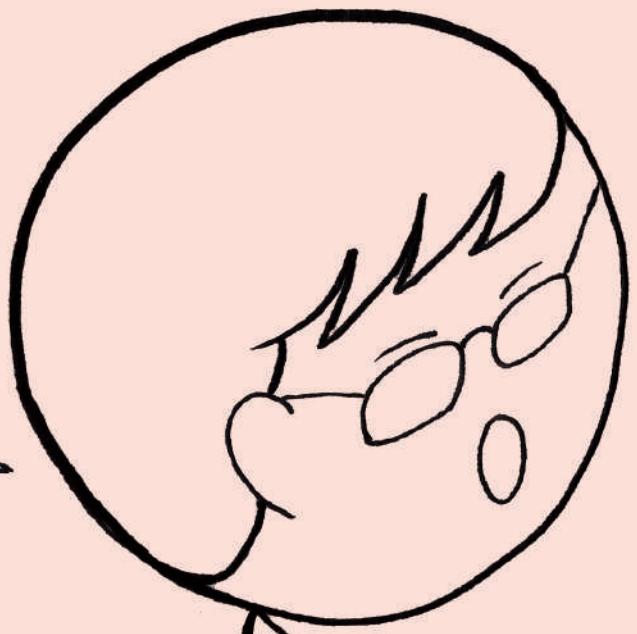
나보다 더
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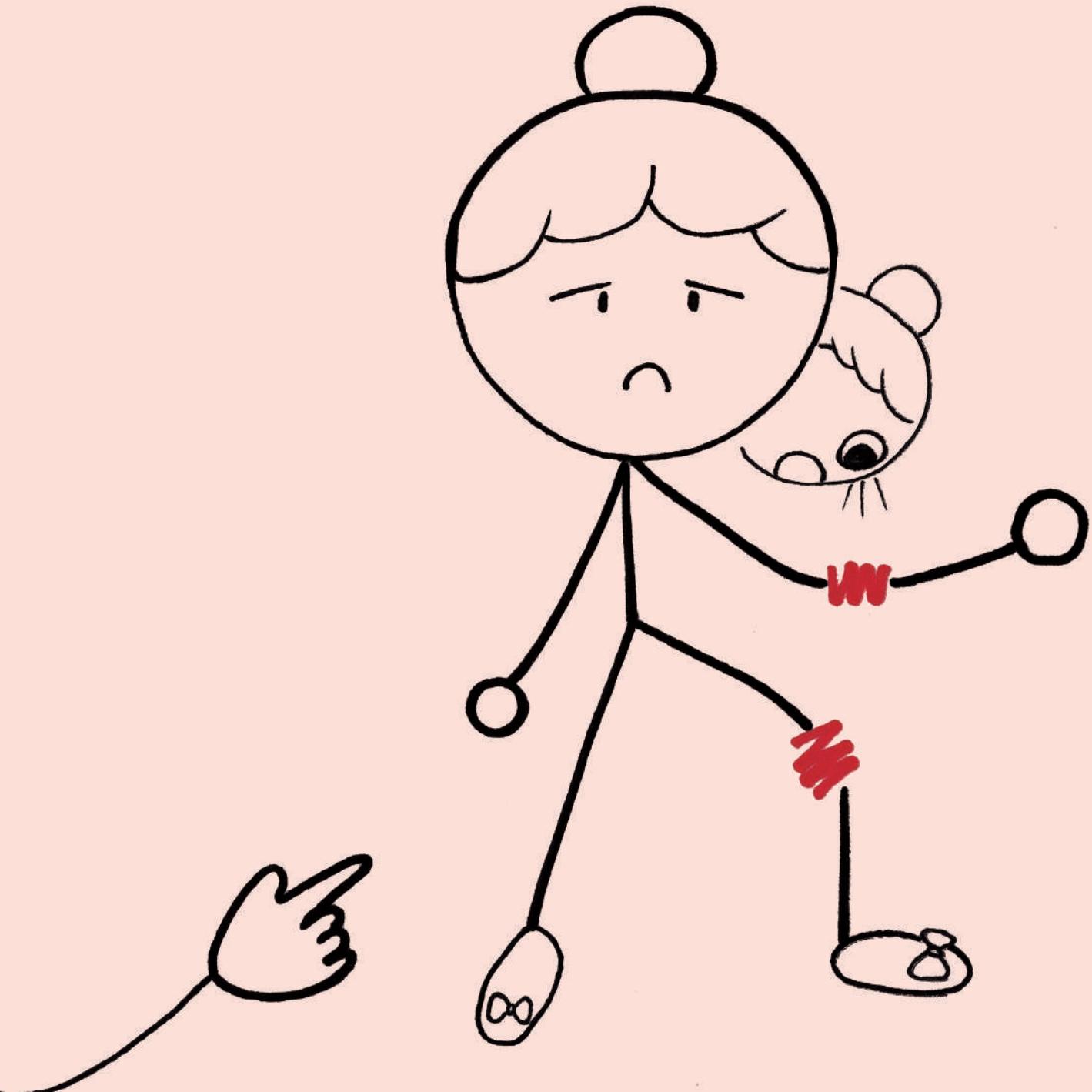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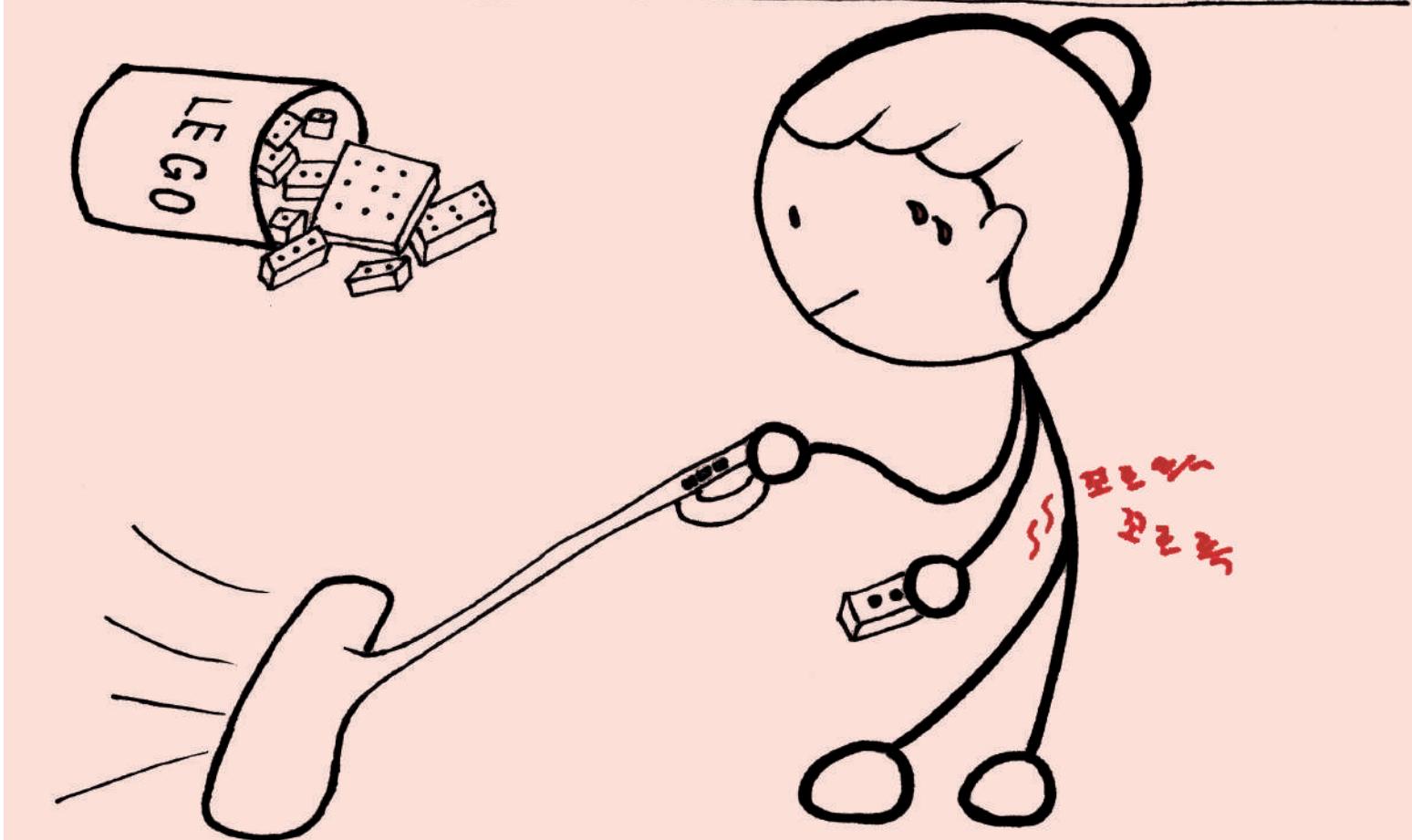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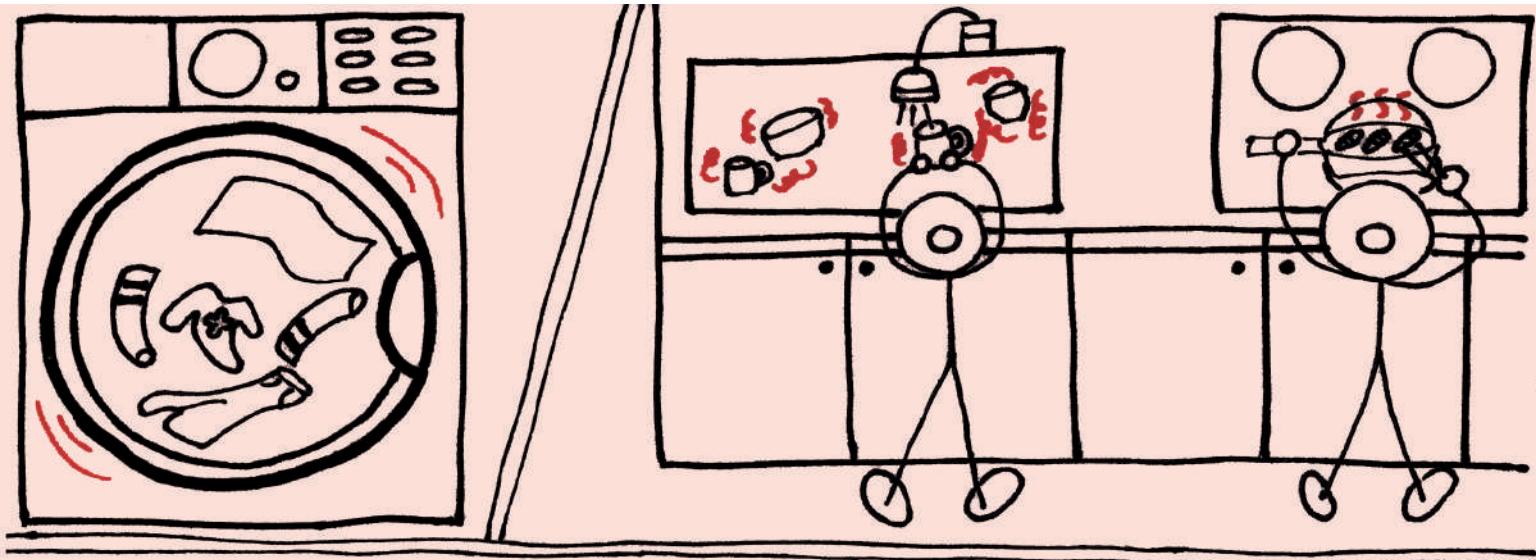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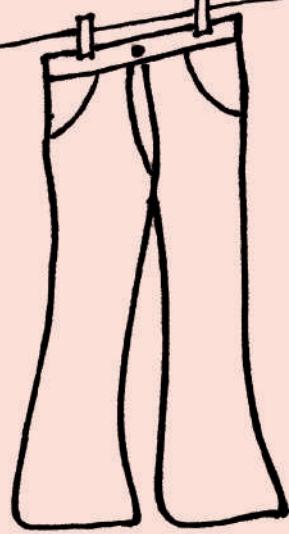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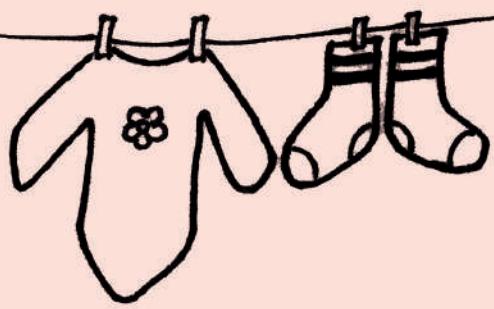
아기보다
엄마가 진료를
보셔야 겠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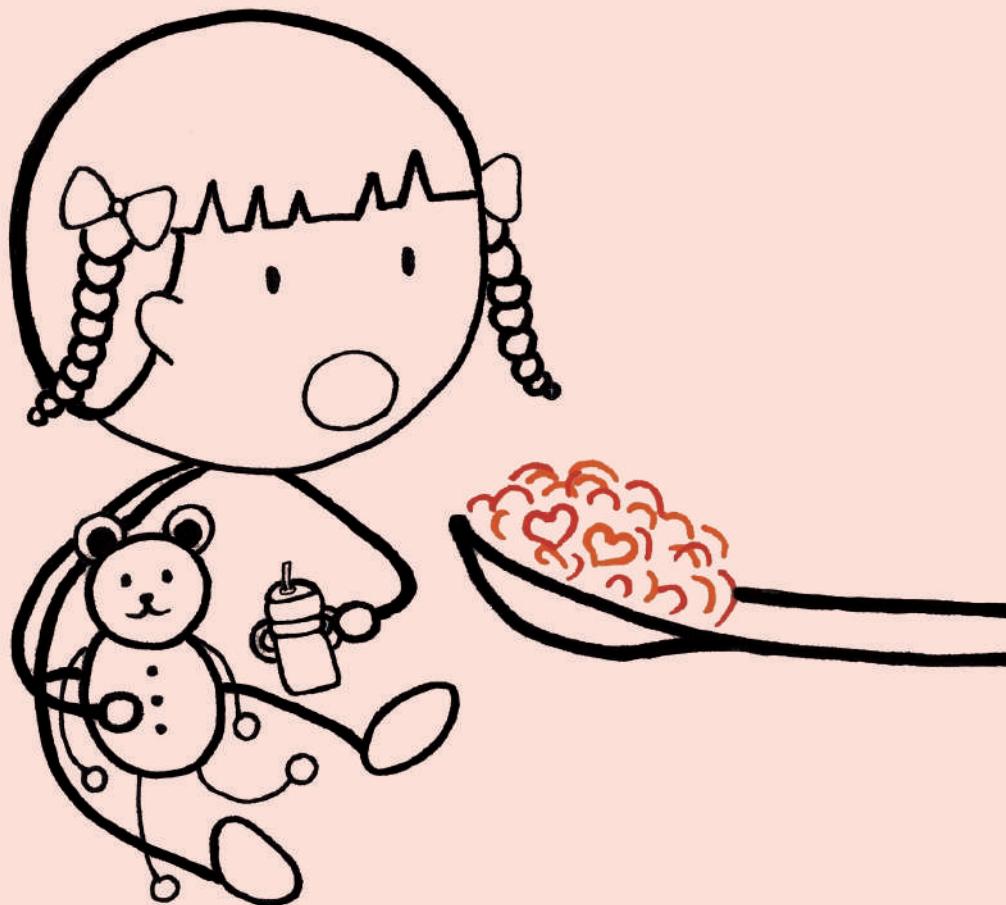




엄마가 되어 보니 알겠더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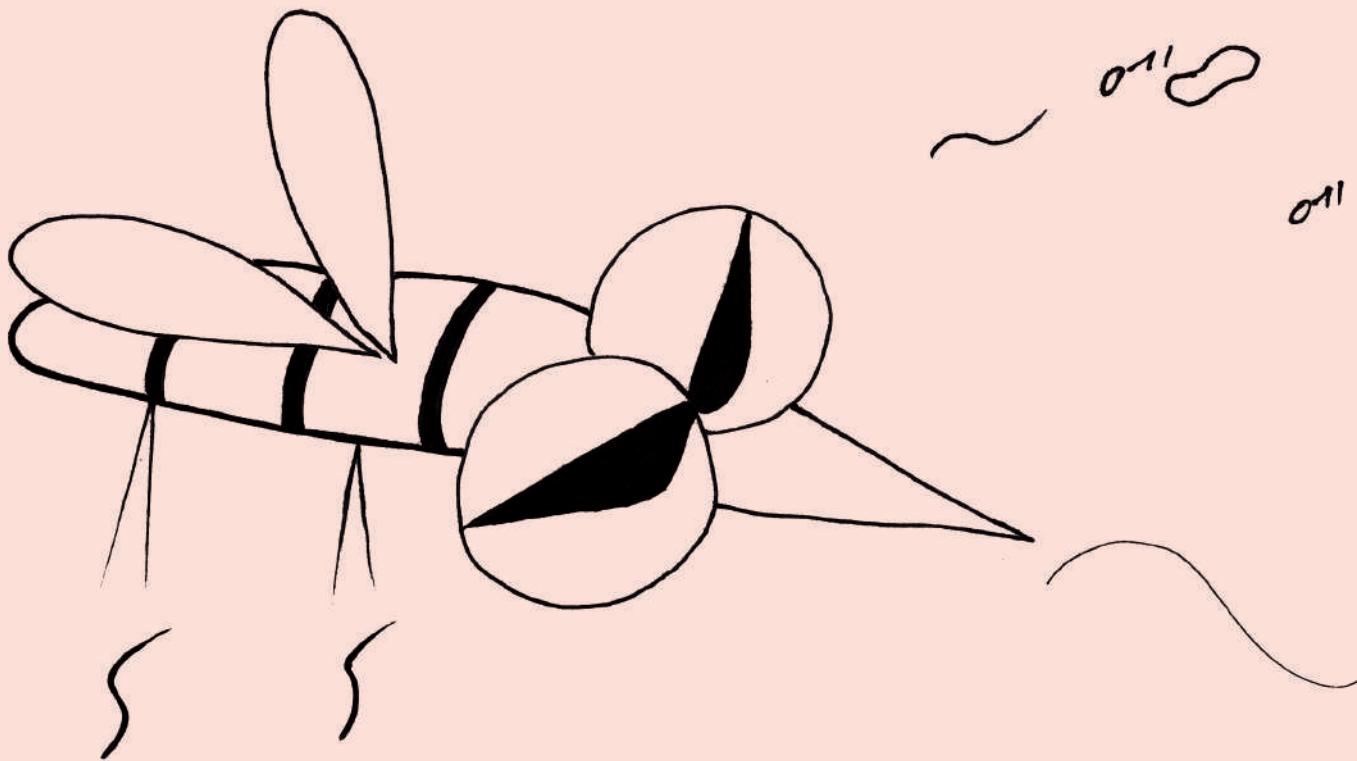


너의 그 작은 입에 들어가는
밥 한 숟가락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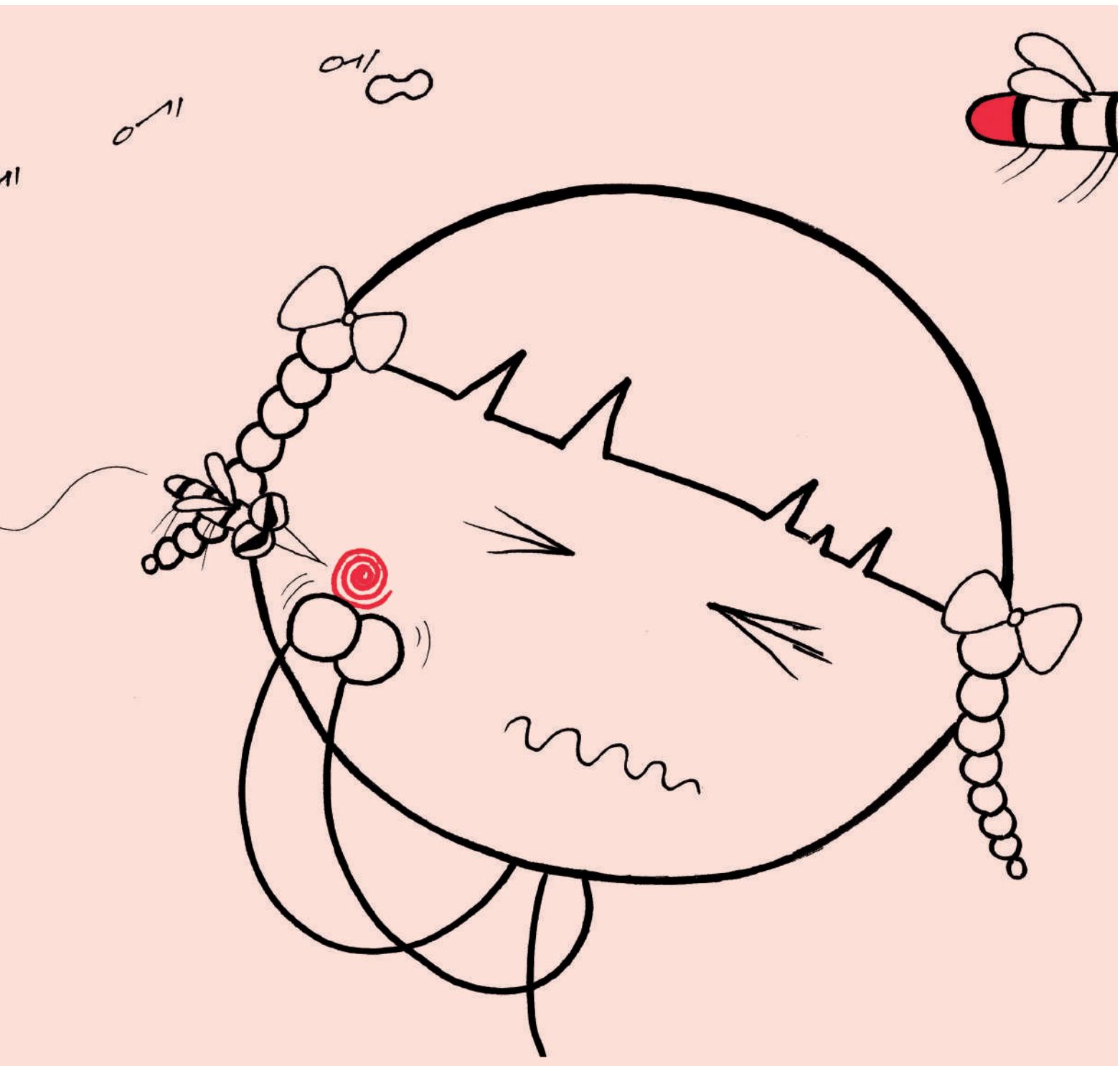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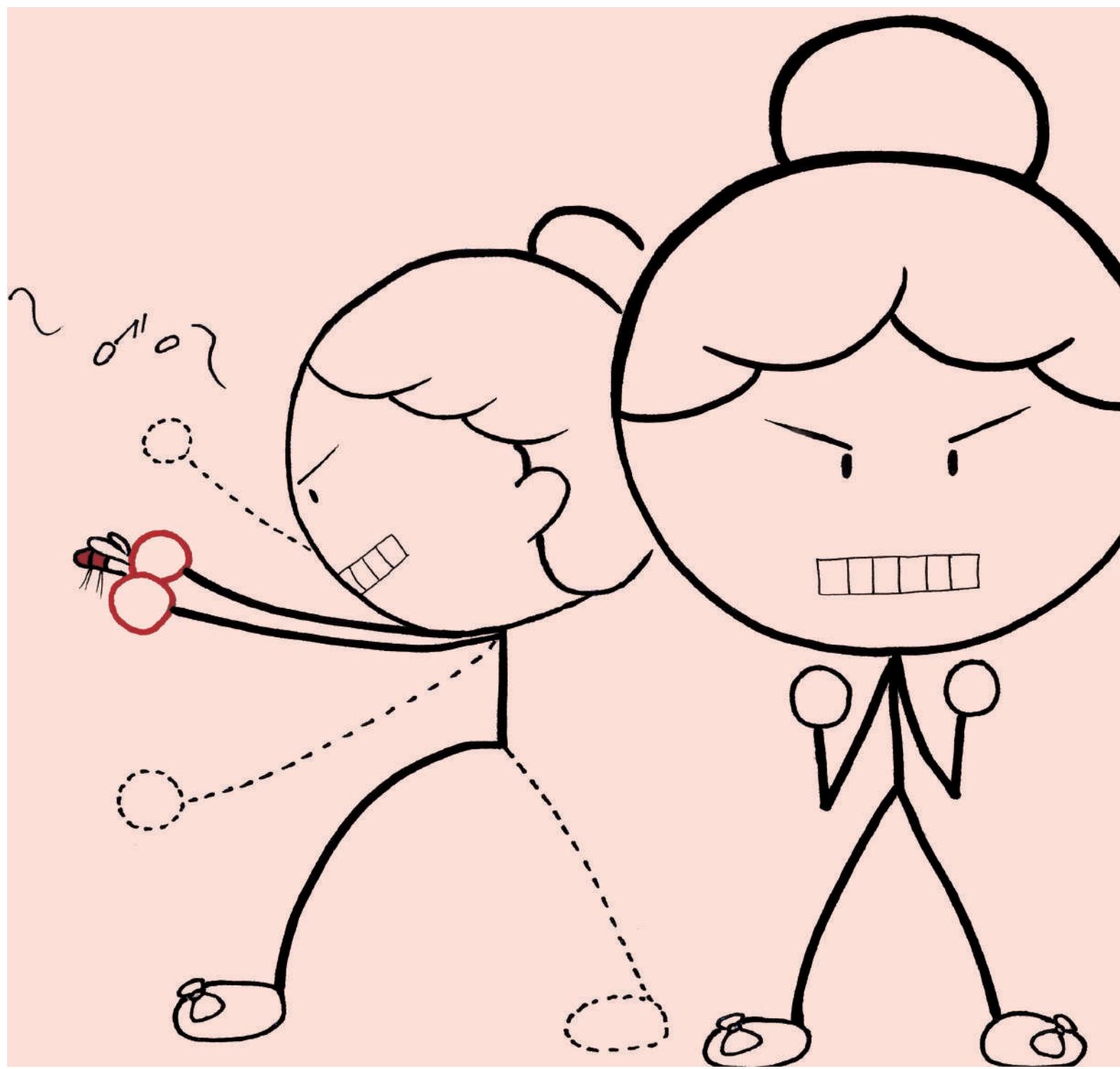


내 배가
부르다는 것을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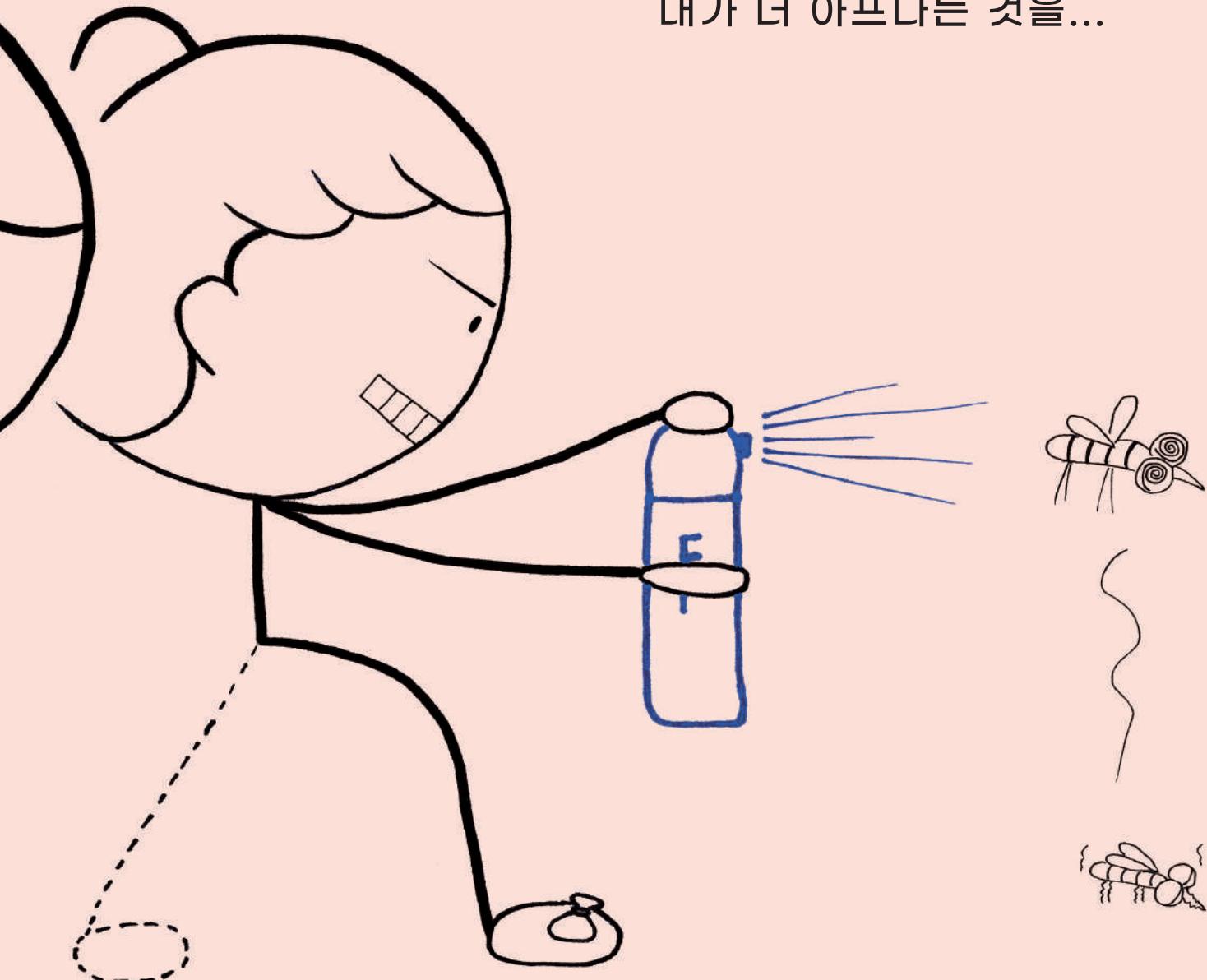


엄마가 되어 보니 알겠더라.





네 몸에 난 작은 상처 하나에
내가 더 아프다는 것을...







엄마가
되어 보니
알겠더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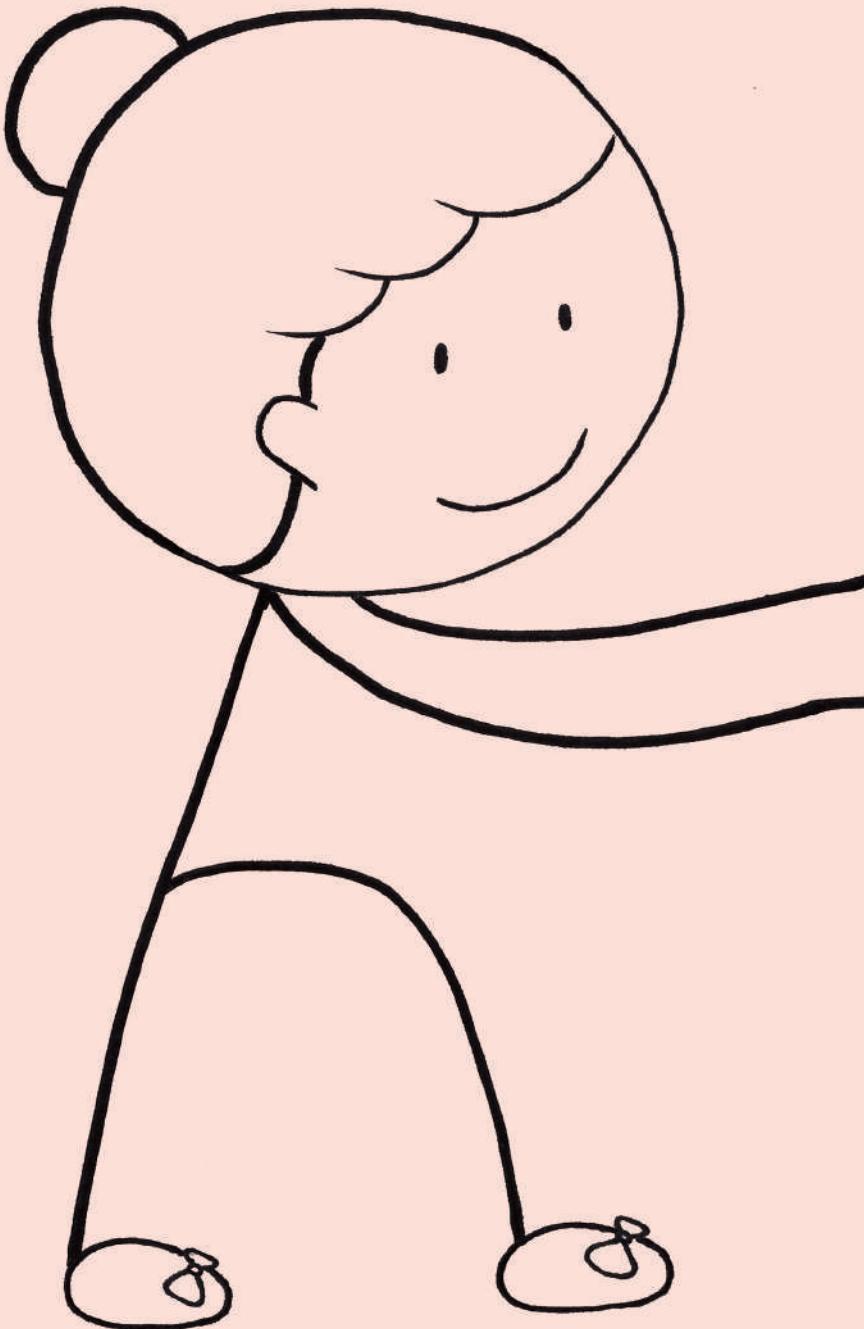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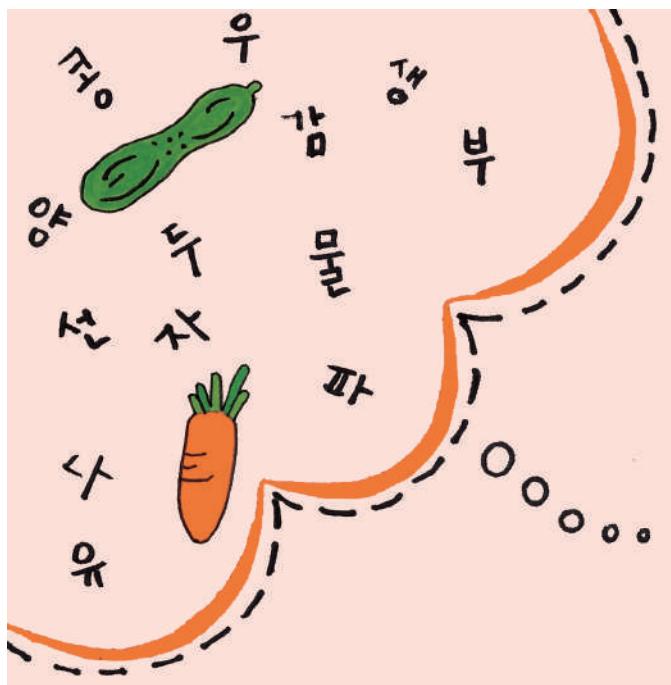
세일 클로버는
행복 이래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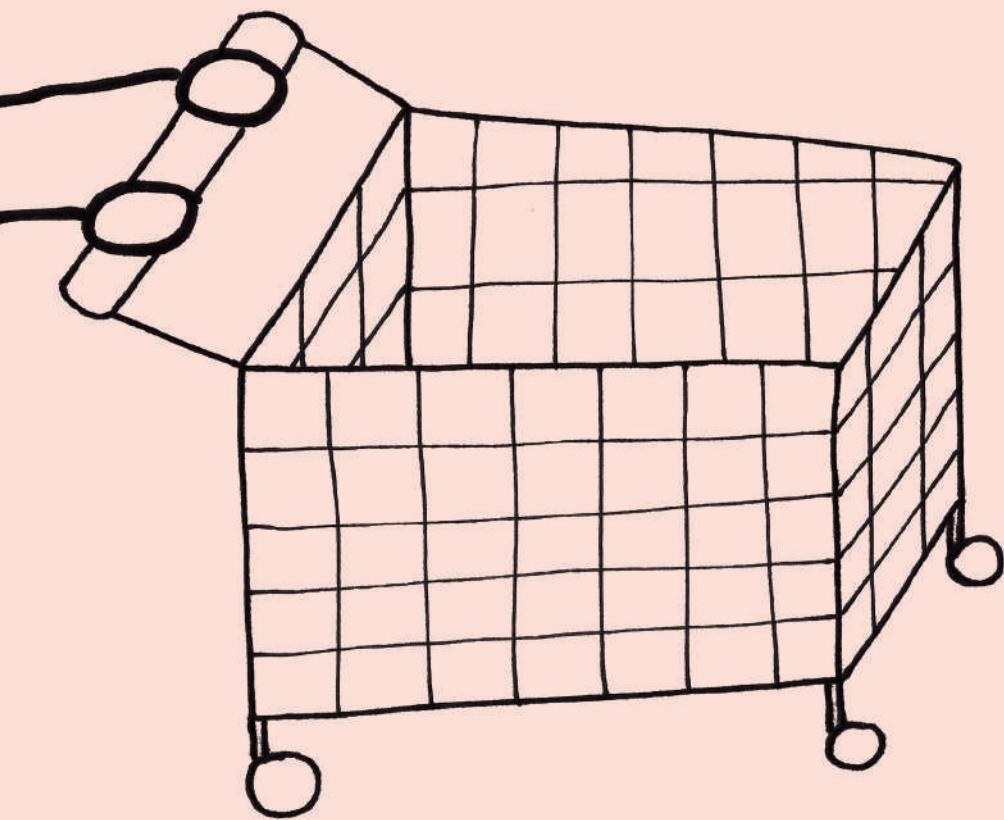


하찮은 풀꽃 하나가
이다지도
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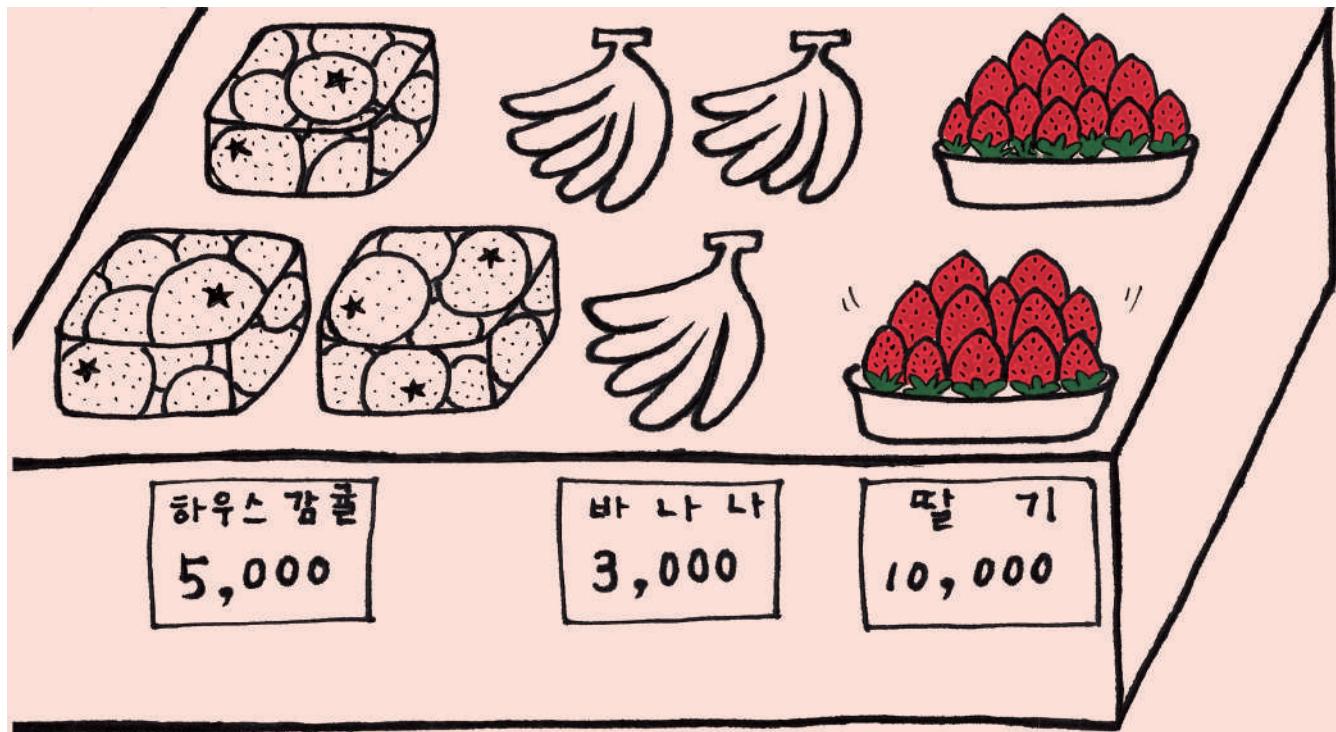


엄마가 되어 보니 알겠더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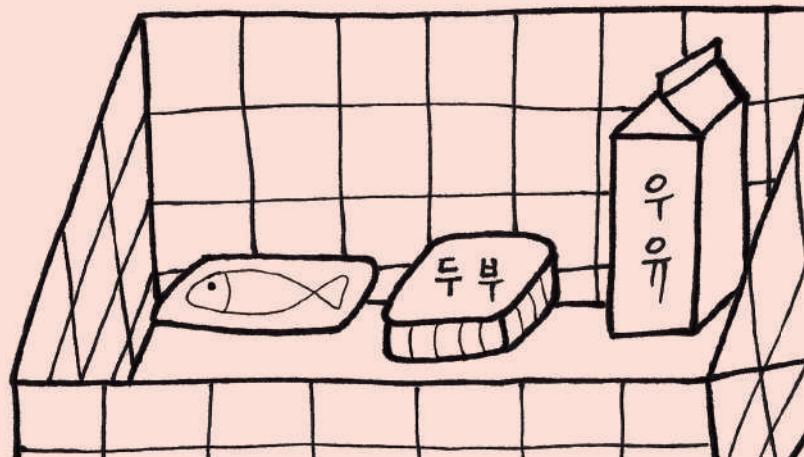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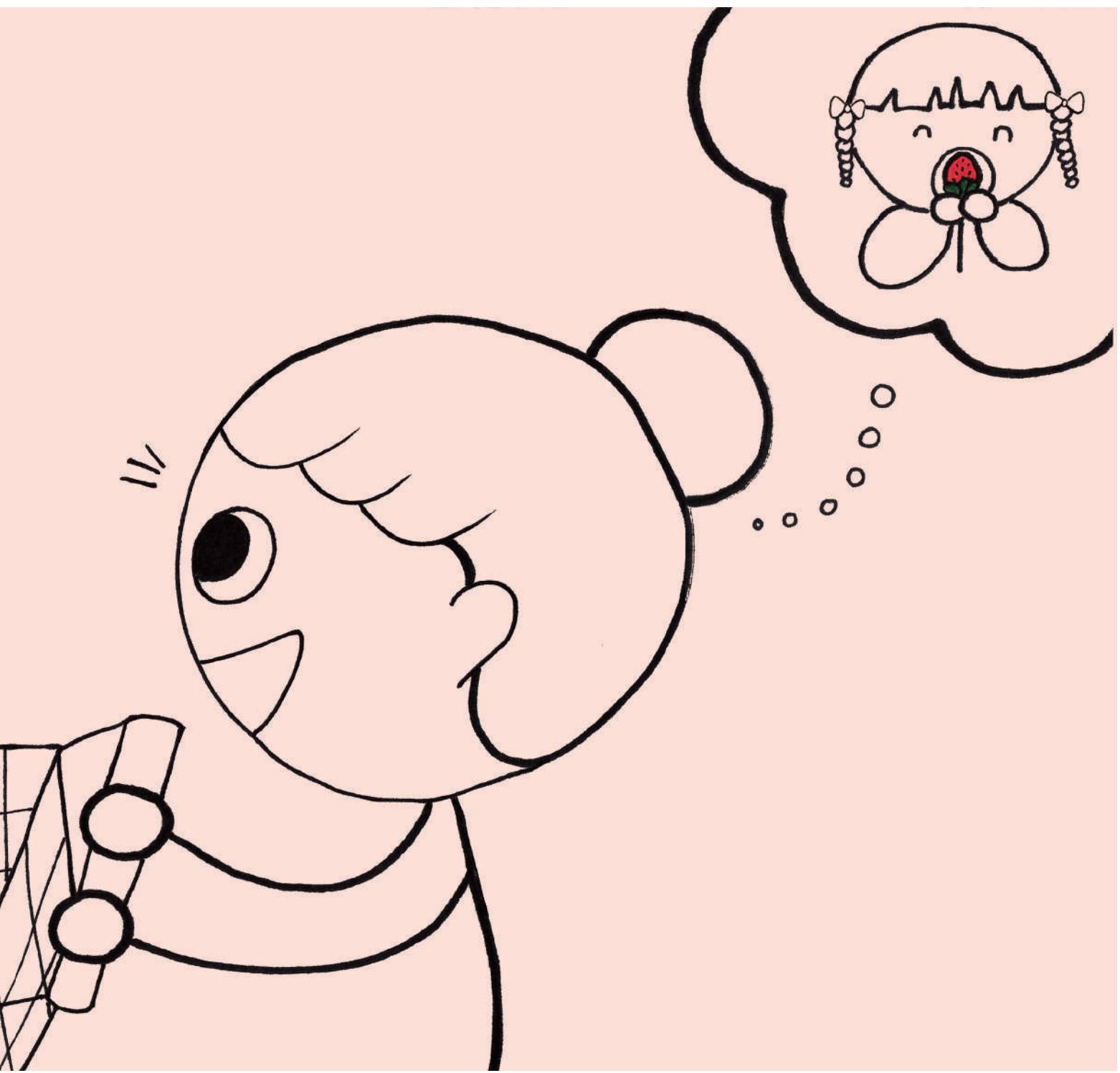
마트

마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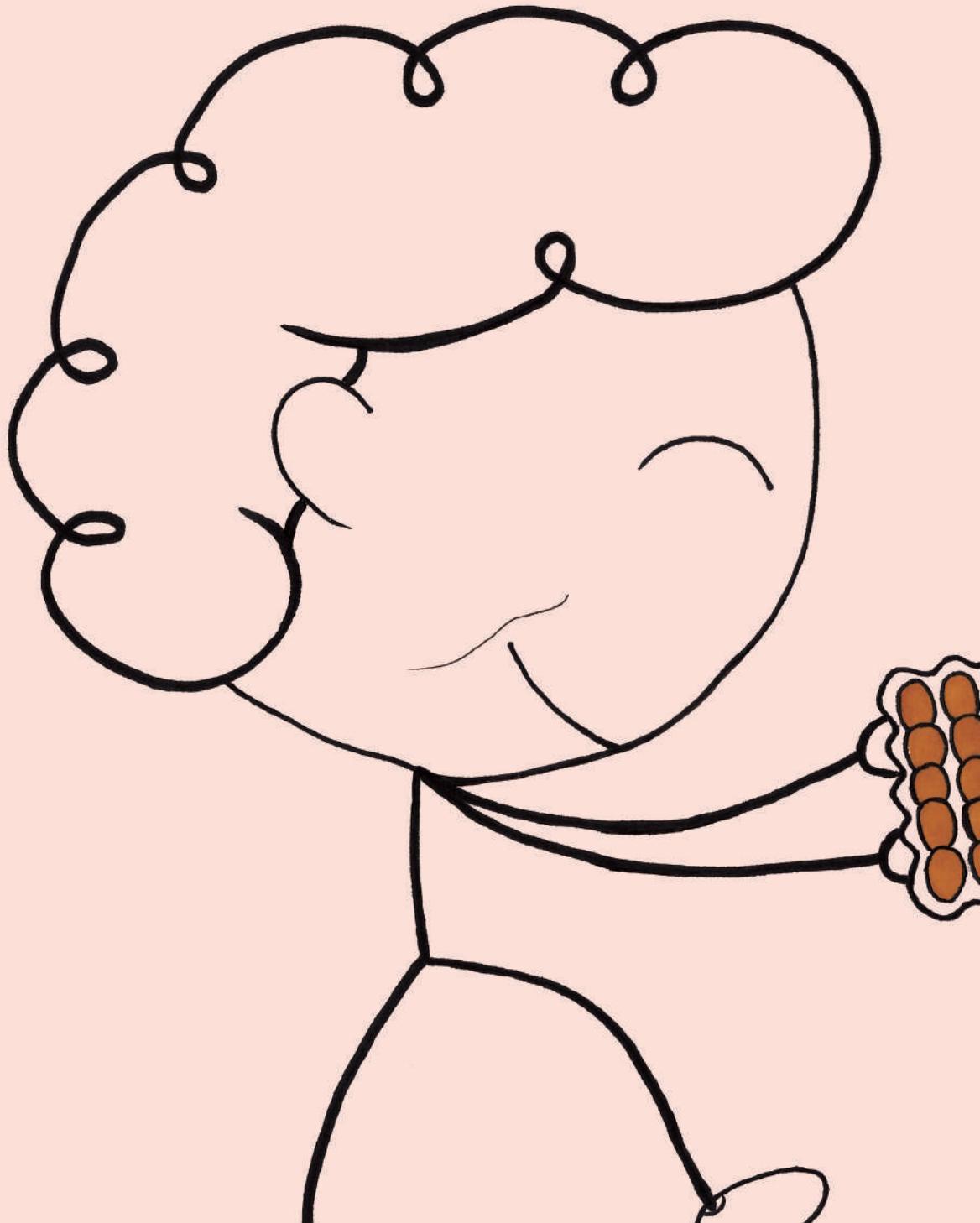


맛있는 것을 보면
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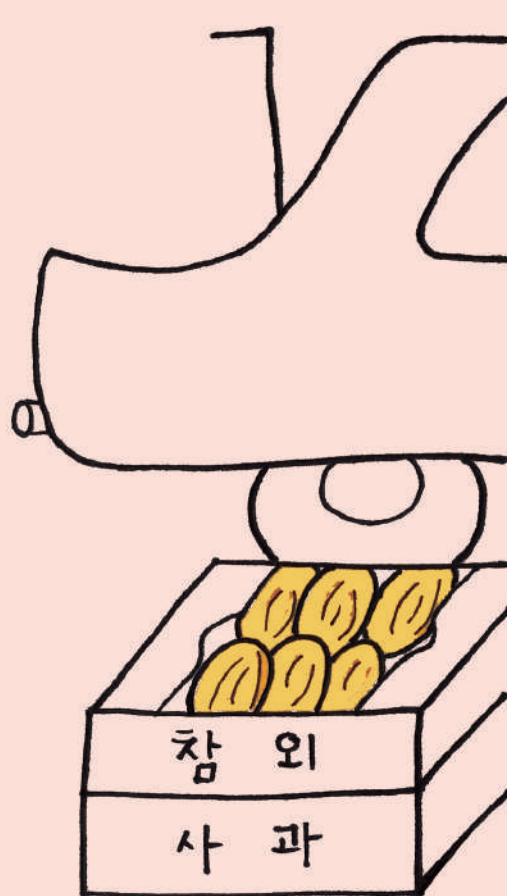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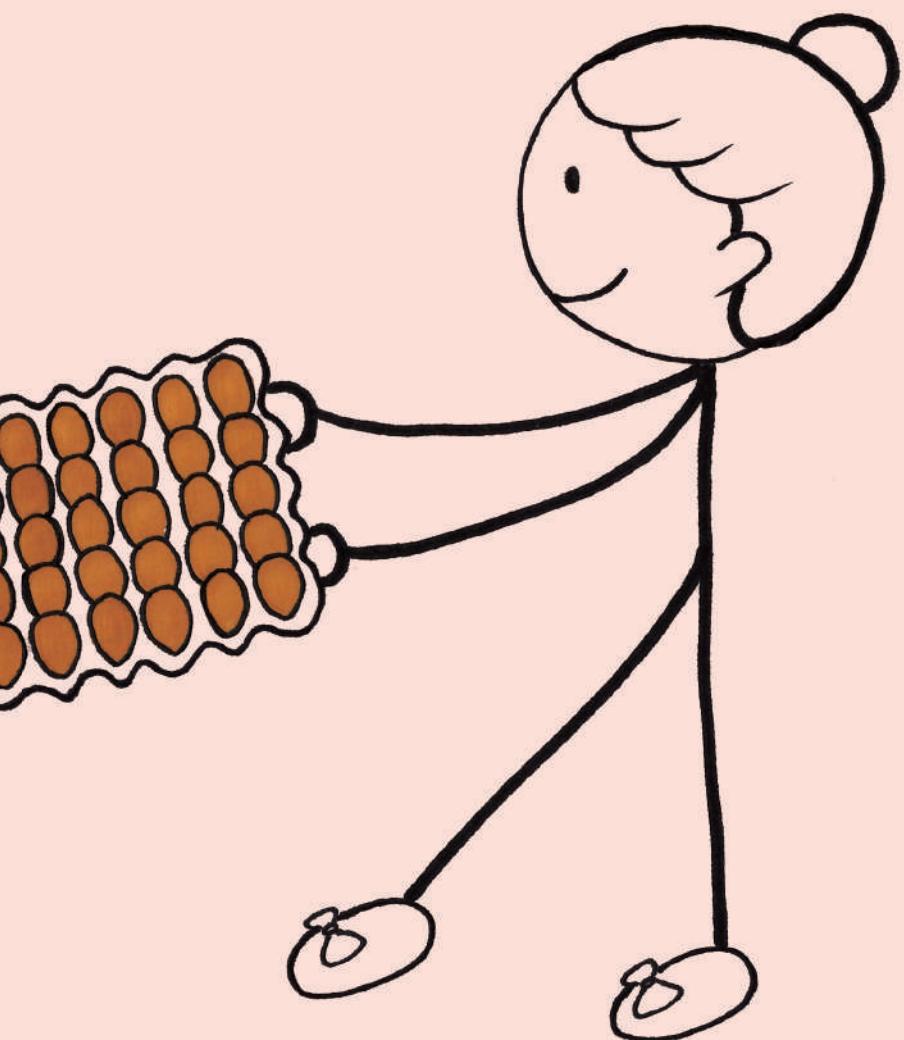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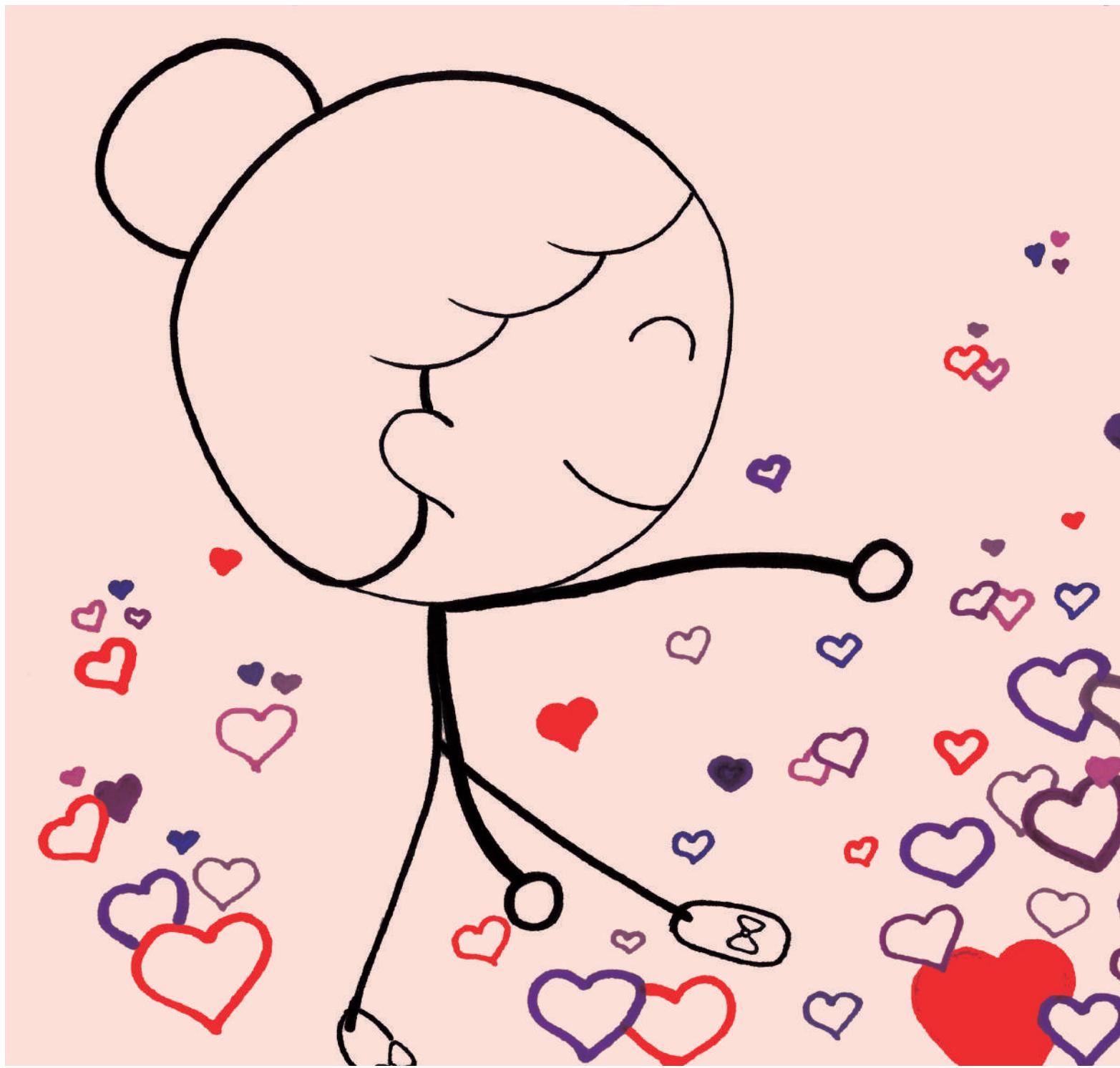


엄마 보물 창고



엄마가 되어 보니 알겠더라.





주고 주고 또 주어도
자꾸 주고 싶은 이 마음을...



